

여성 이혼인식 크게 바뀌었다

결혼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남편의 구타가 잦고, 성격차가 심해도 '아이들 때문에'라며 참고 살아온 여성들이 최근들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및 자녀양육 등에 관해 조정신청을 내는 등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3년 가정법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20년 넘게 조정위원으로 활동해온 작가 박현숙씨는 "불과 얼마전만해도 이혼하겠다는 의사

정신적 고통을 참고 사느니 별거 또는 이혼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다고 김 교수는 풀이했다.

가정법원 가사심판 합의5부 박동섭 부장판사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가정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고, 유책임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바뀐 것도 여성들의 권리주장을 강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래도 아직은 자녀 때문에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조정위원들과는 조

전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두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혼을 전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인도 내세워야 하는 이혼소송과는 달리 가사조정제도는 가정법원(지방법은 각 지방법원 가사부)에 일정액의 인지만 붙여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조정을 원하는 두 당사자와 담당판사 1명, 조정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되고, 당사자가

경제자립등 따라 "내 삶 찾겠다" 적극 가정법원 조정 절반이상 아내가 신청

를 밝히는 쪽이 대개 남편이었는데 요즘은 조정을 맡는 사건 10건 가운데 5~6건 비율로 아내가 제기하는 추세이고, 20~30대 여성들에게서 특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명지대 김숙자 교수(법학)도 "조정 현장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내 삶'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한 편"이라면서 "아주 흔한 예는 아니지만 '이혼 후 재혼을 위해 아이를 말지 않겠다'는 여성도 더러 있어 여성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이러한 의식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매만거

금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가정법원에 제기된 이혼소송, 가사조정사건이 부부 중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는가에 대한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 명지대 김 교수는 이혼소송, 가사조정 사건을 통해본 여성의식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90, 91년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및 조정사건을 내용별로 분석해 92년 여름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제도는 63년 가정법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부부가 남남으로 갈라서기 위한 이혼 소송으로 가기

판단을 원하는 부분 이외에 가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기타 사항까지 조절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 이혼철회를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히 털어놓고 듣게해 좋은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박 부장판사는 말했다. 이같은 운영방침 때문에 조정신청은 해마다 크게 늘어 90년엔 1백41건이었던 조정신청이 올해는 9월말 현재 4백96건으로 무려 3.5배나 늘었다.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들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을 통해 결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철규 기자>

이 접수된 조정신청 4백96건은 △재판상 이혼 2백건 △이혼 및 위자료 1백30건 △사실혼 해소 24건 △인지의 청구 10건 △부양료청구 8건 △상속재산 분할 6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95건 △기타 친권상실, 부부동거 등 23건이다.

<신연숙 기자>